

종합·해설

■ 대선 D-50 여전한 안갯속 판세

보수·진보 결집력이나 연령대별 투표율이나

50~60대 與, 20~30대 野 '쏠림현상' 뚜렷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안갯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 대 진보'의 결집력과 세대별 투표율이 여야의 대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19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출마로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부동의 선두를 유지하고 안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나란히 2, 3위를 달리는 양상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문재인' 간 야권 후보단일화를 가정한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에서는 '안철수 우세',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에서는 '박빙'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는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서도 1~3%포인트 이내의 박빙

의 승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층이 어느 대선 때보다 뿔뿔 뭉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집력을 더 확보한 세력이 이번 대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선 보수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통일당을 흡수 합당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기무사령관을 지낸 허경환 국민행복당 대표의 입당도 이끌어 냈다.

문제는 진보층을 대변하는 야권의 후보단일화 여부, 보수가 뭉치고 있는데 반해 아직은 야권 단일화 여부가 미지수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안-문' 두 후보 모두 3자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점, 지지층의 정권 교체 열망을 저버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는 예정된 수순이라

는 게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전망이다.

야권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도 세대별 투표율이 여야 승패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50~60대는 박 후보, 20~30대는 문·안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총선 등 과거 투표표현을 보면 노장년층은 투표율이 높고 젊은층은 투표율이 낮아 투표율 측면에서는 박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 안원대 대표는 29일 "지금 여론조사의 일대일 대결에서 문·안 후보가 박 후보를 이기거나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령대별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선에서 실제 득표율이 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노장년층의 투표율이 항상 높다는 가정 하에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20~30대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대선 본선의 여야 간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투톱 '이-박' 호남·충청 지원 나선다

이해찬 "세종시에 캠프" 박지원 "전국 출퇴근" 취약지 공략

민주통합당 지도부 핵심인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 국면을 앞두고 고향인 충청과 호남지역으로 내려가 후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고위전략회의' 멤버로 임명되며 사실상 이선으로 풀려난 상황이지만 비주류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으면서 거취 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다.

따라서 두 지도부의 '하방'(下方)

지원 결정은 여의도 중앙무대에서 선거 전략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각각 근거지인 충청과 호남을 베이스캠프로 해 전국을 돌며 취약지 공략에 나서는 것으로 비주류의 압박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의 경우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박 원내대표의 활동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향후 지지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물론 두 사람은 단일화를 대비하기 보다는 대선 본선을 대비한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야권 단일화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이를 대비한 성격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해석이다.

지역구가 세종시인 이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지금부터 (선거 지원에) 매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저도 세종시에 캠프를 차리고 충청권을 중

심으로 강원과 영남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에 매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과 경상도, 충청 등 취약 지역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마지막 한달 간 전력을 다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의총에서 "저도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가 끝나면 출퇴근 방식으로 전국을 다니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최일선에서 땀으로 적시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게 두 사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정치혁신 촉구 민주당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 앞에서 정치혁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野 대선전략, 단일화에 달렸다

문-안, 정치혁신 등 급주부터 물밑 탐색전 시작

대선을 50일 앞둔 야권의 전략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로 귀결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두 후보의 3자 대결은 필패라는 인식이 야권내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 단일화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문 후보), "간너은 다리를 붙잡고 끝까지 가겠다"며 이기는 단일화에 승부수를 띄우면서 한치의 양보 없는 일전이 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재야 원로그룹의 압박이 거세지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후보 등록

일(11월 25~26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단일화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흐름이다.

하지만, 정치혁신 의제 등을 그리로 한 양측간 물밑 탐색전은 이르면 급주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치혁신 경쟁에 한층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 약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하면서 단일화 향배를 좌우할 주요 변수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승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속제로 던진 혁신의 과제를 완수하면서 텃밭인 호남에서 안 후보를 따라잡는 게 급선무이다. 친노 이미지를 벗고 중도·무

당파로 의연을 넓히는 것도 과제다. 안 후보로서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이라는 의구심을 털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는 등 안정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고위원은 29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냉정히 보면 단 일화가 성사된다 해도 지금으로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시점에 대해 "단일후보가 정해지는 시점은 후보 등록 일주일 전쯤이 적당하다고 보며, 그러려면 늦어도 11월 중순 이전에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朴 후보 약점 보완·야당엔 공세 강화 새누리 대선 '투트랙 전략'

연말 대선을 50일 앞둔 새누리당이 기초 변화를 모색 중이다.

박근혜 대선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33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10·26을 기점으로 과거사를 털고 미래를 향해 공세적·적극적으로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박 후보의 약점 보완에 진력하는 한편, 야당에 대한 공세의 강도를 끌어올리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대선 최대 변수인 야권 단일화를 넘어선다는 복안이다. 이념적으로 지지층이 약한 중도층을 공략하고 지역적으로는 충청

권과 수도권 남부 및 전북을 위시한 호남에 다가갈 때의 경우에는 중년층인 3040세대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이를 놓고 '3중(中) 공략'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선 인재영입과 현실에 기반한 정책이다.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으로 자칫 보수색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는 만큼, 친노(친노무현) 구도에 반발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다수 끌어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책의 경우 그동안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론과 함께 진창적 복지 공

약을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중부권 공략도 새누리당이 많은 신경을 쓰는 대목이다.

여당은 또 여세를 몰아 충청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야권에 약세를 보이는 경기 남부와 전북 등 호남에서 새로운 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3040세대의 마음을 얻는 것 역시 중요 과제다.

반면 새누리당은 과거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는 대야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광진 의원 징계안 제출 새누리

새누리당은 29일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명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은 이날 "김광진 의원이 지난 19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지칭해 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 트위터에서 '새해소원은 명박급수'라는 표현을 리트윗한 점, '바른사비어연' 집회에 대해 막말 표현을 쓴 점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경매 NPL 물건 특수물건

▶실전경매 배울수 분
▶경매 물건에 투자하실 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오현경매 H. 010-3605-5000

부동산 매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쌍암동(나이트클럽) 대3238㎡, 233090㎡ 감정가 72억4천 최저가 25억9천	화정동(메식장) 대1094㎡, 214489㎡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17억	두암동(목욕탕) 대570㎡, 21256㎡ 감정가 12억8천 최저가 5억3천	소태동(독서실) 대561㎡, 2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6억9천	월출동(공정) 대1089㎡ 감정가 14억4천 최저가 10억	화순도곡(무인텔) 대1904㎡, 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월계동(근린시설) 대446㎡, 23269㎡ 감정가 6억3천 최저가 3억5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금동(목욕탕) ☞ ▷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정가 7억 10억 ▷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	☞ 군산(바이오에너지공장) ☞ ▷대지 3025평 ▷건물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담양금성(공정) ☞ ▷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정가 7억1600만 ▷매매가 5억(협의후결정)
☞ 용봉동(하이포텍스) ☞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 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32억5천 (협의후결정)	☞ 화정동 (메식장) ☞ ▷대지 330평 ▷건물 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010-8227-7759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쌍암동	대3238, 233090	72억	25억	3층나이트
화정동	대1094, 214489	41억5천	17억	8층메식장
대평동	대230, 21716	7억4천	5억2천	5층근린
두암동	대570, 21256	12억9천	5억2천	4층판정방
수동	대651, 212386	13억9천	5억7천	4층상가
신안동	대4706, 211123	18억2천	12억7천	2층상가
목포동	대1786, 21408	4억9천	2억1천	단층수원원
보성읍	대685, 21763	7억2천	1억9천	2층상가
전주읍	대9232, 211168	12억	4억	단층판정방
전주읍	대665, 21988	11억4천	5억8천	2층나이트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원이사 010-9611-2817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동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 공장, 메식장, 빌딩, 토지, 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